

“미수습자 귀환 때까지 종단도 함께 기도하겠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세월호 참사 3주기를 앞두고 세월호 육상 거치 작업이 진행 중인 목포신항을 찾아 미수습자 가족들을 위로했다. 미수습자 귀환 때까지 함께 기도하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았다. 총무원장 스님은 지난 7일 목포신항을 찾아 인양된 세월호 앞에서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미수습자 9명의 귀환을 기원했다. 목포신항 방문에는 제22교구본사 대흥사 주지 월우스님, 총무원 사회부장 정문스님,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자공스님, 영암 도갑사 주지 설도스님, 사회노동위원장 해용스님 등이 함께 했다.

이번 목포신항 방문은 세월호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종단이 함께 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행보다. 종단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아픔을 나누며 함께 해왔다. 특히 총무원장 스님은 참사 직후 안산 합동분향소 조문을

시작으로, 진도 팽목항 방문,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단식 유가족 격려 방문, 미수습자 가족 예방, 서울 광화문광장 4·16가족분향소 방문 등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왔다.

이날 총무원장 스님은 미수습자 가족들과 만난 자리에서 “뉴스를 보면서 하루빨리 마무리되기를 바라며 답답함을 느꼈다. 미수습자 가

**총무원장 스님, 목포신항 방문
“9명을 모두 찾는 게 소망”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 ‘위로’**

**토요일 마다 발원기도 이어가는
사회노동위 임시법당 참배 격려**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세월호 참사 3주기를 앞둔 지난 7일 세월호 육상 거치 작업이 진행 중인 목포신항을 찾아 “미수습자 귀환 때까지 종단이 함께 기도하겠다”며 가족들을 위로했다. 작은 사진은 육상거치 작업 중인 세월호.



족 여러분들은 천 배, 만 배 더 답답할 것이다. 세월호가 육상에 거치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내를 갖고 기다리길 바란다”며 “답답하고 분통이 터지더라도 마치막까지 용기를 내달라.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기도하겠다”고 밝혔다. 미수습자 가족 조은화 양 어머니 이금희 씨는 “세월호가 안 올라올까봐 걱정이 많았다. 육지로 올라오고도 9명을 못 찾고 있다. 미수습자 9명을

모두 찾는 게 소망”이라며 “총무원장 스님과 불교계의 마음과 정성이 모여 돌아올 것으로 믿는다. 끝까지 기도해 달라”고 말했다.

가족들을 만나고 난 뒤 총무원장 스님 등은 세월호 육상 거치 현장 앞에서 반야심경 봉독과 발원을 올렸다. 스님들은 한 마음으로 “차갑고 어두운 바다에서 세월호가 올라왔지만 아직도 우리 마음속의 차가움과 아픔은 깊은 바다

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남은 인양작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묻혀졌던 진실들이 드러나 오랜 고통과 아픔이 치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목포신항에서 마련된 사회노동위원회 임시 법당을 점배하고 수석부위원장 도철스님을 격려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 5일 목포신항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 만남 컨테이너 바로 옆에 임시법당을 조성하고 기도 정진하

고 있다. 임시법당에는 도철스님과 양한웅 집행위원장이 상주하며 매일 1000배, 관세음보살 정근, <금강경> 독송, 염불 등 미수습자 조기수습 발원기도를 이어가고 있다. 8일에 이어 오는 15일, 22일 오후 2시 임시법당에서 범호가 봉행되며, 범회 동참은 매주 토요일 오전 8시 서울 조계사 앞에서 출발하는 버스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목포=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잘 돌아왔다...상한 곳 없나” 떠돌던 문화유산 ‘환지본처’

도난 문화재 원소장처 봉안...송광사를 가다

26년 만에 다시 마주한 부처님을 바라보는 영진스님 눈빛이 쏜다. 우여곡절 끝에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아온 불화, 지장시왕도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영진스님이 “잘 돌아왔다” 한 마디 던지자, 여기저기서 “상한 데는 없는가” “그래도 크게 훼손 안되고 돌아왔으니 이만하면 다행이지” 소리가 쏟아진다.

지난 6일, 조계종립 송광사 성보박물관. 1991년 도난당했던 지장시왕도가 다시 복에 걸렸다. 정확히 26년만이다. 2014년 조계종과 문화재청, 경찰청이 협력해 서울의 한 사립박물관으로부터 회수한 48점의 도난 문화재 가운데 한 점이다. 도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장시왕도 하단, 제작자와 봉안장소가 기록된 화기는 찢겨졌다. 덧칠한 흔적도 발견됐다. 대좌 위에 자리한 석장을 든 지장보살,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사왕과 사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송광사 스님들 표정에 처연함이 짙게 배었다.

도난 당시 송광사에 주석했던 영진스님(전 재무국장)은 1991년의 겨울밤을 토렷이 기억해

냈다. “잠을 자다가 관음전에 일이 생겼다길래 얼른 뛰어나갔다. 탕화가 없어졌다는 거야. 도둑맞을 것을 대비해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야간경비도 썼는데 소용없었지. 법당 한쪽 창살을 자르고 들어 왔더라고. 당시 사찰 살림으로는 구하기 힘들었던 위키토키(무전기)도 구비해두고 있었는데... 그래도 크게 손상되지 않고 다시 우리 절로 돌아온걸 보니 기뻐.”

힘들었던 만큼 기쁨도 큰 재회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1975년 도난당한 송광사 16국사 진영은 아직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문화재 복원의 원칙은 문화재를 원소장처로 돌려보내는 것이지만 사실상 도난 문화재 소재가 파악되더라도 반출 경위, 보존 여부 등의 논쟁으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오랫동안 떠도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범인이 잡히더라도 은닉 등의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반환은 ‘역사적인 선례’라 할 만큼 의미가 크다. 송광사 주지 진화스님은 “쉽지 않은 일이었음에도 종단과 관계 기관



26년 동안 송광사를 떠나있던 지장시왕도가 다시 고향의 품으로 돌아왔다. 지장시왕도를 앞에 두고 독경하는 송광사 스님들.

의 노력으로 성보 48점이 모두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며 “이는 사찰 밖으로 유출된 수많은 불교 문화재를 제자리로 돌려놓음으로써 성보를 단순히 도난품, 돈의 가치가 아닌 보존하고 계승해야 할 문화유산의 가치로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문화재, 특히 삼보의 정신이 깃든 불교 성보는 본래 자리에 있을 때 제 빛을 발한다는 뜻이다.

문화재청과 조계종이 발간한 <불교문화재 도난백서>에 따르면 1984년부터 2015년까지 도난당한 성보는 총 440건에 이른다. 신고 및 등록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은 건을 포함하면 그 수는 수천 건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성보 수천 아니 그 이상이 어둡고 차가운 수장고에 갇혀 빛

을 보길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종단은 지난 4일 고불식을 시작으로 5일부터 7일까지 3일에 걸쳐 1988년부터 2004년까지 전국 20개 사찰에서 도난당한 48점의 성보를 원소장처로 이운했다. 48점 성보 중에는 제작자와 봉안장소 등을 숨기기 위해 불상의 모습을 하나씩 잘라낸 순천 선암사 53불도와 나이 든 모습의 나한상에 색을 덧칠해 젊은 모습으로 뒤바꾼 전주 서교사 나한상 등도 포함돼 있다. 이번 이운으로 짧게는 10년에서 길게는 29년까지 어둠에 싸인 채 수장고에 보관돼 있던 성보들은 보존처리를 거친 뒤 모두 본래 있던 곳에 모셔졌다.

송광사=이경민 기자 kylee@ibulgyo.com

‘내 가족부터 포교하자’ 제71차 포교총책연찬회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스님)은 ‘내 가족 전법하기-가족포교 활성화 방안과 포교과제’를 주제로 한 제71차 포교총책연찬회를 오는 19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

포교원은 어린이청소년 불자를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족포교를 모색하고 있다. 이날 총책연찬회에서는 부모가 어린 자녀들과 함께 법회에 동참하거나 가정에서의 가족 프로그램으로 불자 가족을 만들어 가는 방법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족법회의 모범사례를 분석하고 현 시대에 적합한 가족 포교 및 가족법회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백도수 능인불교대학원 교수가 ‘현대 가족포교 필요성과 대책’을, 서울 성림사 주지 현담스님이 ‘가족법회 모범사례를 통해 본 활성화 방안’을 각각 발제한다. 아울러 불불사 주지 지오스님, 금륜사 주지 본각스님, 최미선 동원 사무국장, 이기재 법안정사 부부불자회장이 토론에 나선다. 장영섭 기자 fuel@ibulgyo.com

동학사 비구니 스님들의 삶과 수행 이야기!!

**동학사 승가대학에서 40여 년 동안 후학을 지도하고 있는
일초 스님(승가대학원장)과 학인들이 주고받은 편지 모음집!**



일초 스님 지음 | 국판 292쪽 | 값 14,500원

일초 스님은
1963년 광주 신광사로 출가, 경인 스님을 은사로 득도하고, 고암 큰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를, 자운 화상을 계사로 비구니계를 수지하였다.
현재 니갈마야사리, 동학사 승가대학원장 및 화엄학림 학장으로 후학을 양성하면서 전법에 힘쓰고 있다.

우리가
사랑할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있으면 번거롭고 없으면 섭섭한 것이 중의 마음인가?
중이란 참으로 고약한 인생을 배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50대의 1년은 20대의 5년과 같은 것입니다.
어느 날 훌쩍 누구 하나 곁에서 사라지면 그 빈자리 메우기 위하여 가슴 아파야 하는 뜨거운 안고 살아야 하는 나이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이별'에 대해 써놓은 게 생각나네요.
스님, 스님도 나와 같은 심정이 아닐까 싶어서 보냅니다.
모쪼록 아프지 말고 건강하세요.

1991년 1월 30일
꿈에 들지 못하는 한밤중에
일초 합장